

大學博物館의 機能과 役割

尹 世 英*

目 次

序	우리나라 大學博物館의 設立
博物館의 發達	大學博物館의 機能
博物館定義의 改訂	大學博物館의 役割
우리나라 博物館의 發達	結 論

序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博物館法이 制定되지 않아 國·公·私立 또는 大學博物館法(規約·定款)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때 大學博物館단이라도 보다 理想的인 設立과 運營 또는 發展의 方向의 摸索을 爲하여 韓國大學博物館協會의 主管으로 韓國大學博物館의 回顧와 展望·大學博物館의 機能과 役割·韓國大學博物館의 現況과 問題點 등을 가지고 發表할 수 있는 機會를 만들어 주신 韓國大學博物館協會와 이 大會를 爲하여 좋은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濟州大學校 그리고 이 大會를 進行하기 爲하여 힘써 주신 여러분께 發表者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여기에 參加하여 주신 여러분이 모두 博物館에 對하여 잘 알고 계실줄 믿지마는 博物館의 定義를 極히 簡單히 說明한다면 博物館이란 調査·研究·鑑賞의 對象을 蒐集하여 이것을 展示한 建物이다. 博物館은 時間과 空間을 通하여 넓게 散在된 物件을 便宜上 한곳(一場)에 모아 둔 곳이다. 그러므로 博物館이라는 곳이 過去에는 特定 嗜好人 또는 特殊한 專門家의 出入處로 여겨져 왔으며 一般人은 勿論 知識人들에게까지도 博物館은 日常生活에서 먼거리에 있었던 것도 事實이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우리들은 새로운 博物館時代를 맞이하였으며 地域을 달리하여 各種의 數많은 資料가 蒐集·保管·展示·研究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文明의 情報 收藏庫라고 할 수 있는 博物館은 一般大衆 社會에 까지도 깊은 關係의 對象이 되고 있는 것은 周知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博物館의 重要性이나 社會的 機能에 關하여 觀念의 理解는 있어도 實際의 管理·運營에 對해서 關心을 기울인 것은 우리나라의 境遇 極히 몇사람 또는 最近의 일이라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社會의 安定과 文化意識의 高潮로 因하여 博物館의 數도 全國적으로 늘 뿐만 아니라 그 種類도 多樣化되고 收藏品의 質量이 높아지고 이를 管理·運營하는 사람들도 많은 訓練과 研究를 쌓고 있다. 한편 博物館을 찾는 이들도 廣範圍하여 各界 各層의 사람들로써 그들은 또 여러

* 高麗大 教授

가지 關心을 갖고 있다.

그러나 地理的으로 隣國인 日本, 自由中國 또는 東南亞細亞 諸國이나 멀리 歐美의 여러 나라를 한 번씩이라도 旅行한 사람들은 그곳의 博物館의 社會的 機能이나 役割에 對한 評價가 大端히 높은 것을 體驗하였을 것이고 本人도 博物館을 움직였던 한사람으로서 느끼고 배운 點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國·公·私立 博物館 또는 大學博物館에서는 그 所任과 目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博物館의 넓은 意味로서의 教育的 役割을 十分 發揮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大學博物館을 포함한 各種 博物館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與件에도 問題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이번 大會로서 大學博物館만이라도 보다 發展的인 契機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博物館의 發達

大學博物館의 機能과 役割을 알기 爲해 于先 博物館의 發達과 大學博物館 設立을 살펴보았다.

먼저 博物館의 萌芽는 로마時代의 家庭博物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은 로마人들은 彫刻이나 繪畫類를 熱心히 蒐集하였는데 이러한 蒐集은 調査·研究의 目的이 아니고 다만 裝飾的 效果를 내기 爲함이었다. 이것도 當時 寺院이나 一般人들의 出入이 많은 場所에 裝飾된 것을 보고 家庭內에 珍貴品을 모으는 風土가 流行되어 高位層의 人事들이 特別한 房을 만들어 貴賓의 接待 또는 自己奢侈를 目的으로 한 것이 博物館의 始初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들은 美術品 뿐만 아니라 稀貴한 自然物도 포함시켜서 그들의 邸宅에 獅子·호랑이 같은 猛獸나 孔雀 外 여러가지 鳥類도 飼育하였으며 他國에서 蒐集한 珍貴한 植物 등도 모았던 것이다. 그後 유럽의 中世社會에서는 많은 教會나 寺院에 稀貴한 物品이 收藏·陳列되었는데 이것도 亦是 教育이나 研究 目的은 아니었다. 그런데 15世紀 文藝振興은 博物館의 急激한 發展을 促進시키게 되었다. 伊太利의 후로렌스(피렌체)에서 로마(法王·王侯·官吏들이 珍貴品の 收集·保存을 獎勵하는 한편 大規模의 遺蹟發掘이 始作되어 16·17世紀頃에는 伊太利 各地를 비롯하여 獨·佛等 유럽諸國에서는 博物館 設立이 크게 流行되었고 專門學者에 依해 蒐集·保管·展示·研究를 하게 되었다. 또 이 時期는 各國에서 文化 藝術이 發達하여 自然物·自然現象도 科學的으로 研究하게 된 때이고 特히 印度航路의 開通·新世界 發見 등으로 各國의 民族學的 資料가 交換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17世紀 後半으로부터 18世紀 初에는 科學의 研究가 活潑히 進歩되어 各國에서는 여러 學會가 생기고 各種의 專門誌를 刊行하게 되었으므로 유럽의 여러나라들은 博物館의 創設을 서두르게 되었는데 이 時期에도 그 內容은 創立者나 蒐集家 또는 個人的 趣味의 蒐集에 不過하였다.

19世紀에 들어서면서 科學의 進歩와 더불어 繼續的으로 蒐集된 資料는 科學的으로 整理되어 各地에서 大規模의 博物館이 設立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博物館은 從來의 個人的 趣味나 蒐集癖이 아닌 公共의 目的으로 建設되고 公開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代表的인 것을 살펴보면 1973년 프랑스에

서는 파리 루브르宮殿을 그 蒐集品과 함께 國民에게 公開한데 이어서 유럽各國에서는 宮廷植物園까지도 無料로 公開되어 從來 小數 善好人에게만 獨點되었던 것이 社會의 公共機關으로 登場하게 되었다. 이러한 社會公共機關으로서의 博物館은 次後 教育機關으로 發展하게 되었다.

1877년 프랑스의 파리에 創設된 理工學專門博物館이 有名하고,

1807년 考古學者로 有名한 톰슨(Thomson)博士에 依하여 코펜하겐에 세워진 先史考古博物館(現 덴마크의 國立博物館)을 비롯하여 유럽 各地에는 自然科學博物館·美術博物館이 創設되었다.

1845년 英國에서는 博物館에 關한 法令(Museum Act of 1845)이 처음으로 國會에서 通過되어 公費로서 博物館을 建設·維持하게 되었고,

1853년 英國 런던에 世界最初로 國立中央大博物館이 세워져 科學과 美術·工藝를 中心으로 大衆教育(Popular education)의 目的에 이바지 하였고,

1880년 大英博物館은 學者의 研究와 大衆의 教育을 爲하여 最新式의 陳列法의 實施와 研究設備의 完成을 보았는데 이러한 現象은 英國內 各地 뿐만 아니라 海外의 여러 博物館을 刺戟하여 博物館의 教育的 活動의 發展을 促進시키게 되었다.

1877년 만체스타의 호스폴博物館(Horsfall Museum)이 세워지고,

1897년 셀비教育博物館(Educational Museum at Selby)이 大衆教育機關으로서 發足되었고,

1895년 헤슬메이어博物館(Educational Museum at Haslemere)이 세워져 市民을 爲한 公共博物館 建設의 意慾이 高潮되어 英國 各地에서는 博物館의 建設이 最盛期를 맞았다.

한편 美國에서는 조지 브라운 구드(Dr. George B. Goode) 博士에 依하여 1888年 美國歷史協會에서 博物館에서 “博物館의 歷史 및 歷史博物館”이라는 題目으로 博物館이 教育機關임을 力說하였고,

1889년 부록크린 인스티튜트의 講演에서 “將來의 博物館”이란 題目으로 發表되고

1895년 “博物館管理原則”이란 論文을 發表하여 博物館은 自然現象을 보다 잘 解說한 實物과 人類의 業積과를 調和시켜 知識의 進歩와 民衆의 啓發에 利用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여 美術·歷史 뿐만 아니고 科學博物館의 重要性도 力說하였다.

1921년 인디애나州에서 博物館法이 制定 實施되고 各地에 地域社會博物館(Community Museum)이 建設되어 民衆啓發과 學校教育에 利用되었다.

博物館定義의 改訂

이러한 博物館의 設立理念·目的이 世界第二次大戰後 社會의 進展과 더불어 점점 進化되고 있는 事實은 最近 約 40餘年間 國際博物館會議(ICOM)가 그 定義를 네번이나 바꾼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參考삼아 잠깐 살펴보면

첫번째, 1946년 11월 國際聯合의 UNESCO에 國際博物館會議가 誕生하여 同會議에서 博物館을 다 음과 같이 定義하였는데,

“博物館은 一般에게 公開된 美術·工藝·科學·歷史 또는 考古學資料를 비롯하여 動·植物園을 包含한 모든 蒐集을 包括한 곳”이라 하였고,

두번째는 1951년 7월 英國런던大會에서 國際博物館會議 憲章中 第2章 博物館의 定議에서 “博物館은 藝術·美術·科學 및 技術關係의 蒐集品外 植物園·動物園·水族館 等 文化的 價値가 있는 資料 標本類를 各種의 方法으로 保存하고 研究하여 그 價値를 高揚하여 公衆의 慰樂과 教育에 이바지하기 爲하여 公開함을 目的으로 하여 公共의 利益을 爲해 經營되는 常設의 施設을 일컫는다. 또 公共圖書館·公共記錄保管所(文書類)等의 常設 展示室을 갖춘 것도 博物館으로 取級된다”라 하였고

세번째로 1962년 7월 오란다 대회에서의 博物館의 定義는 研究·教育 및 娯樂을 目的으로 하여 文化的, 科學的 意義있는 蒐集資料를 保管하여 展示하는 常設機關은 모두 博物館으로 볼 뿐만 아니라

- 1) 公共圖書館 및 文書館으로 常設된 展示館
- 2) 大衆에게 公開되고 있는 史的 記念物 및 寺·社의 寶物 宗教의 建物 等 그 附屬物件·史蹟 遺蹟 및 自然景觀地域
- 3) 生動하고 있는 것을 展示한 植物園·動物園·水族館·生態飼育館 및 其他의 機關
- 4) 自然保護地域
- 5) 科學센터 및 天文館(프라네타리움, Planetariums)

네번째는 1974년 6월 덴마크(Denmark)의 코펜하겐(Copenhagen)大會에서 採擇된 再改訂의 定義는

第3條 “博物館은 社會와 그 發展에 奉仕하기 爲하여 人類와 그 環境에 關한 物的證據를 研究하고 教育과 慰樂을 目的으로 하여 蒐集·保管·研究·傳達·展示하는 非營利 目的의 恒久的 機關이다”라 하고

第4條 “既述의 博物館의 定義에는 下記와 같은 것도 包含된다”고 하여

- 1) 圖書館 및 公文書館으로 恒久的으로 維持되는 保存施設과 展示室
- 2) 自然·考古·民族의 記念物·遺蹟·史蹟 및 博物館의 性格을 갖는 現地에서의 蒐集·保存 및 傳達 活動을 行하게 되는 곳
- 3) 植物園·動物園·水族館·生態飼育館과 같이 生動하는 것을 展示하는 施設
- 4) 自然保護地域
- 5) 科學센터 및 天文館(프라네타리움, Planetariums)이 이에 該當된다고 定義하였다.

우리나라博物館의 發達

「三國遺事」 “紀異” 卷一에 貴妃庫가 있는데 이 庫는 財貨와 寶物의 保管庫임을 알 수 있다. 이 貴妃庫의 由來는 延鳥郎과 細鳥女가 渡日하여 歸國하지 않다가 貴妃가 된 細鳥女가 잔 비단만을 보내와 이를 國寶로 保管한 곳이다. 또 “紀異” 卷二에는 慶州 月城의 天尊庫에 萬波息笛을 收藏했다는

記錄이 보인다.

또 慶州 雁鴨池 建物址의 東側에 回廊이 하나 있었는데 이곳에서 호랑이·곰 등의 猛獸 뼈가 發見되고 이들 猛獸에게 물을 먹이던 浴槽같은 施設이 發見된 것은 當時에 猛獸를 飼育하였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것이 事實이라면 우리나라 動物園의 始源이라고 할 수 있겠다.

「高麗宣和奉使 高麗圖經」“宮殿條”에 長和殿이 있어 나라의 寶物을 貯藏하여 警備를 單單히 하였다는 記錄과 高麗史에 珍禽奇獸와 龜魚를 山澤에 놓아 길렀다는 것이 보이고 靑瓷離宮을 지어 各花果木奇珍物을 布列케 하였다 한다.

咸興誌 宮室條 慶興殿에 關한 記錄에는 宮의 後苑殿內에 絲笠日月圓鏡 弓韜長箭 등을 秘藏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近代의 意味에서의 博物館의 出現은

1908년 9월 純宗이 昌慶宮에 李王家博物館을 發足하여 三國時代로부터의 佛敎의 工藝品 高麗磁器 朝鮮時代磁器 및 繪畫·歷史風俗圖 등을 蒐集 保管하였고,

1909년 11월 昌慶宮을 一般에게 公開함과 아울러 植物園·動物園·李王家博物館을 公開하다가 1911년 李王家博物館 建物이 創建되고 1915년 乙巳保護條約으로 大韓帝國을 併合한 日本은 朝鮮總督府의 施政을 宣傳하기 爲하여 物產共進會를 景福宮에서 開催하였는데 이것이 後에 博物館으로 開館되어 主로 古蹟發掘調査에서 出土된 物品(遺物)·歷史·美術·工藝의 資料와 名寺刹에서의 收奪品 등을 展示하였고,

1920년 慶州에 總督府博物館 分館이 設立

1934년 公州古蹟委員會가 1940년 公州博物館으로 發足되고 이어서 開城·平壤에도 府立(現 市立) 博物館이 서게 되었다.

1938년 德壽宮이 一般에게 公開되고 李王家博物館에서 美術品만을 골라 李王家美術館으로 되었는데 이 李王家美術館의 建物·展示가 우리나라 近代의 美術館(博物館)의 嚆矢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解放과 더불어 美軍政이 始作되면서 國立博物館이 문을 열게 되고, 이어서 仁川市立博物館, 南山에 民族博物館이 設立되고,

1951년 慶州·扶餘·公州博物館이 公開되고,

1969년 德壽宮美術館이 國立博物館으로 統合.

1978년 新安海低의 元代遺物을 引揚 展示하기 爲해 光州博物館을 開設하게 되고,

1977년에는 釜山市立博物館이 開館되었다. 이 외에도 個人博物館으로서는 日人에게 우리의 文化財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爲하여 國寶級의 美術品을 蒐集 展示한 澗松美術館을 들 수 있고 이 밖에도 70年代 以後에는 社會의 安定과 文化意識의 高潮로 各種 特殊 大形個人博物館이 設立되었는데 에밀레美術館, 韓獨醫藥博物館, 溫陽民俗博物館, 誠庵古書博物館, 成保美術館 등이 문을 열었다.

우리나라 大學博物館의 設立

世界大學博物館의 始源은 1863년 大收藏家인 엘리아스 아슈몰(Elias Ashmole)의 蒐集品이 英國의 Oxford 大學에 寄贈되어 Elias Ashmolean 博物館으로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博物館의 嚆矢는 1934년 現 高麗大學校의 前身인 普成專門學校가 우리 民族의 資原과 經營에 依하여 우리나라 唯一의 民立大學으로 設立되었는데 이 學校의 經營者가 當時 散失되는 民俗資料를 主軸으로 民族의 文化財를 蒐集 展示한 것이 初임이 되었다.

1935년에는 이 나라 女性教育의 嚆矢인 梨花女子專門學校에서 高麗磁器를 비롯한 美術品을 蒐集 展示하였다.

1945년 日帝에서 解放된 이 나라에는 全國各地에서 大學이 設立되어 學生數도 急激히 增加하기 始作하였다.

1946년 서울大學校 博物館이 문을 열었고(實은 그 以前부터 京城帝國大學博物館이 있었음)

1948년 嶺南大學校 博物館이 公開되었는데 뜻하지 않았던 6·25戰爭을 맞게 되었으나 收復되면서

1954년 中央大學校 博物館

1959년 慶北大學校 博物館

1959년 東亞大學校 博物館

1959년 全南大學校 博物館이 公開되면서 現在는 全國에 約 50個校가 博物館을 갖추고 있는 實情이다.

이렇게 全國적으로 各大學이 博物館을 附設할 수 있는 理由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들어 보면 于先

1967년 公布된 文敎部 大學教育基準令에서 綜合大學校는 200m² 以上の 博物館을 設置하라는 規定이 있으나 이 規定은 强制性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時期에는 全國 各地에서 專門의인 盜掘꾼에 依해 遺蹟의 破壞行爲가 極甚하였고 이 機會에 盜掘團과 結託한 商人 또는 收藏家는 先史 遺物로부터 美術品·民俗品까지도 賣買하게 되었고 또 各大學博物館에서도 直接 間接으로 이러한 出土品을 入收하게 되었다. 한편 各大學에서는 擔當部處의 許可를 받아 先史遺蹟으로부터 三國時代의 遺蹟發掘調査가 行하여지게 되고 이런 遺蹟에서 出土된 遺物은 學校博物館에 保管 陳列하여 博物館의 展示品을 늘리고 또 文化財의 散失을 막는데도 크게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韓國考古學 發展에도 크게 寄與하였다. 그後 各大學의 增大에 따라 文敎部 大學設置基準令도 바뀌어 1970년 1월 大統領令 第4511號, 改訂 1970년 1월에 大統領令 第4543號에 依據하면 第3章 施設基準의 第10條 9項에 博物館·科學館 其他의 附屬施設 項에 大學 또는 學科의 規模에 따라 적의 設置한다라고 되어있고 同 第12條에 綜合大學校에서는 第8條 2項의 規定에 依한 設備 以外에 다음의 基準에 依한 博物館·科學館 其他 文敎部令으로 定하는 附屬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同條 1項에 博物館은 學生 2,000人미만까지는 450m² 以上, 2,000人 以上일 때는 600m² 以上으로 할 것으로 되

어 있다. 그런데 무슨 理由에서 인지는 몰라도 同條 2項에 보면 科學館은 學生 2,000人미만까지는 900m² 以上, 2,000人 以上일 때는 1,200m² 以上으로 할 것이라고 發表하였는데 博物館이나 科學館의 重要度 基準을 어디에다 두고 그러한 計算을 하였는지는 모르겠거니와 實際로 博物館이 있는 大學은 全國에 50個校가 있으나 寡聞한 탓인지는 몰라도 大學에 附屬된 科學館은 이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大統領令이라도 그 失效를 거두지 못하면 大學施設基準令을 再考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大學博物館의 機能

위에서도 살펴 보았거니와 博物館이란 考古·歷史·人類·民俗·藝術·自然科學·産業에 이르기까지의 各種 資料를 蒐集·保管·展示하므로써 一般의 教育的 目的에 利用되고 그들의 教養이나 調查 研究 나아가서는 休息處나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에 가지도 寄與하고 또 그에 맞는 事業을 하며 이들 資料에 關한 自源의 調查研究와 社會教育機能을 수행하여야 하는 곳이다.

한편 大學이라는 곳은 教育과 研究하는 機能을 同時에 갖고 있는 機關임은 우리 모두 잘 아는 事實이지만은 大學에는 다른 하나의 機能 卽 第3의 機能이 存在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大學은 研究成果를 社會에 還元한다는 것이며 이 말은 大學은 스스로가 社會教育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따라서 위에서 博物館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아 보았으니 大學博物館도 어떠한 機能을 가져야 한다는 解答은 나온 셈이다. 또한 大學博物館은 두말 할 나위없이 그 大學에 附設 附屬된 視聽覺教育機關中的 하나이다. 그러므로 大學博物館은 屬해있는 大學의 教育理念과 一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大學博物館도 一般博物館과 같이 考古·歷史·美術·民俗品 等の 必要한 參考 資新를 蒐集·保管·展示·研究活動에 꾸준한 努力을 하여야 함이 當然한 일임은 위에서 여러번 이야기되었다. 따라서 大學內的 附屬機關으로서의 大學博物館도 위에서 본 3個 機能을 遂行한다 함은 첫째, 一般學生(自·他大學包含)의 教養을 넓히기 爲한 役割이다. 例를 들어보면 社會科學系를 專功하는 學生이 大學附屬博物館에 가서 歷史的인 資料 美術品 등을 보고 그들의 教養을 넓힌다던지 人文科學系의 學生이 自然科學 關係의 資料를 보고 새로운 知識을 習得하는 것이다. 둘째는 當該 資料를 專功하는 學生이나 이에 關聯있는 分野를 專功하는 學生들에게 專門教育의 場이 되는 곳이다. 이것은 考古學專功의 學生이 大學附屬博物館에서 展示 또는 收藏된 資料를 調查하면서 考古學에 關한 直接 또는 間接教育을 받는 것이다. 세번째는 自己大學의 學生들에게 뿐만 아니라 他大學의 學生이나 그 大學이 屬해 있는 地域社會 및 遠近을 莫論하고 또 高等教育을 받는 이나 받지 못한 사람들도까지도 널리 開放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大學博物館이 가지고 있는 機能中에서 研究에 關해서 살펴 보면 그 大學이 收藏하고 있는 資料는 勿論이려니와 다른 곳에 保管·展示된 것 또는 이와 關聯된 補助資料나 遺蹟에 對한 調查 研究도 恒常 持續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研究된 刊行物은 잘 備置하여 調查·研究를 爲해 찾아오는 人事들에게는 언제나 自由스럽게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大學博物館의 機能이나 役割도 社會의 變遷에 依하여, 다시 말하면 博物館을 에워싸고 있는 環境의 變化에 對應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게 마련이지마는 위에서 살펴 본 博物館의 定義속에 機能을 說明하였듯이 大學博物館은 資料가 가지고 있는 情報를 보다 나은 條件으로 表現하여 視覺者에게 提示(Presentation)함과 아울러 그 資料가 가지고 있는 價値를 올바르게 傳達(Communication)하여야 될 것이다.

보다 나은 條件(環境)이라 함은 資料를 表現하기 爲한 場所를 意味하는 것이므로 博物館의 建物 內에 있을 경우도 있고 野外에 있을 경우도 있다. 또 表現이라 함은 資料가 지니고 있는 情報를 調査·研究됨이 前提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過程을 거치지 않으면 올바른 表現은 不可能할 것이다.

또 大學博物館은 그 大學이 收藏하고 있는 展示品の 內容에 따라 規模는 작다하여도 여러 種類의 蒐集品을 모아 展示하면 綜合博物館이 될 것이고 規模가 크다하여도 特殊한 蒐集品만을 保管·展示하면 專門博物館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知識이 一般化되고 文化가 大衆化되고 學問이 普偏化되고 있는 한편, 學問·社會·文化가 細分化되어 綜合博物館보다는 專門博物館이 漸次 增加하는 추세이다.

文敎部 統計資料에 依하면 全國에 97個의 大學 또는 大學校가 各各 그 敎育理念을 넓게는 共通되게 좁게는 性格을 달리해서 設立 運營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文科·理科學, 政·法大學, 經商大學, 工科學, 農科學, 醫科學, 美術大學, 音樂大學, 體育大學, 家庭大學, 師範大學, 水產大學, 海洋大學이 있고 以外에도 警察大學 各 士官學校·陸軍大學(一般大學과는 다르지만) 등이 있다. 또 宗教的으로 보아도 神學大學이 있고 카톨릭·佛敎·儒敎的인 性格을 지니고 있는 大學도 있다.

勿論 綜合大學校인 경우도 여러 種類의 收藏品을 展示할 수 있겠지만 社會·文化·知識이 細分化되고 있는 이 時點에서 그 많은 種類의 것을 완벽하게 모두 蒐集·展示한다는 것은 絶對적으로 不可能한 일이다. 그러므로 農商工系의 大學은 各各 우리나라 또는 他國의 農商工業의 發展過程을 또 藝體能系의 各大學에서는 美術·音樂·體育의 發生·發展過程을 水產·海洋大學에서는 水產學·海洋學 및 그 補助資料를 蒐集·展示하고 女子大學에서는 古代로부터의 女性에 關한 社會·文化·藝術 등 여러가지 資料를 集中的으로 蒐集·展示하여야 될 것이다. 이러한 作業은 그 大學의 性格上 그 大學에 맞는 專門인 學生들만을 敎育시키는데도 좋은 資料가 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으나 大學 또는 大學博物館이 그 研究成果를 社會에 還元시킨다는 뜻에서도 當然히 이러한 方向으로 轉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많은 種類의 資料를 蒐集한다는 것은 時間이나 經費에 限界性이 있으므로 大端히 어렵고 또 不可能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떠한 特殊 또는 專門博物館을 만들기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各 專門인 大學들이 그間 蒐集된 資料도 많을 것이고 또 그 方面에 專門인 知識을 가지고 있으므로 全國에 또는 他國에라도 散在된 遺物이나 이에 補助되는 資料를 蒐集하기란 그리 어려운 作業은 아닌 줄 안다. 이것은 반드시 그에 關한 遺物만을 찾기 때문에 좀 힘이 들지 모르겠으나 이에 補助되는 參考資料外 其他資料를 蒐集하는 것은 別로 어려운 作業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蒐集·展示된 資料는 그 特殊한 學問을 專功하는 그 大學의 學生에게 뿐만 아니라 그 方面에 關心있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좋은 敎育의 場이 될 것은 當然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大學博物館의 役割

博物館이란 博物館憲章에서 規定되었듯이 藝術·歷史·科學·技術에 關한 蒐集品과 動物園·植物園·水族館等 文化的 價値가 있는 資料標本 등을 各種의 方法으로 保有하고 研究하여 一般公衆의 教育·娛樂를 爲하여 公開 展示함을 目的으로 하여 그것이 公共의 利益을 爲행 寄與하는 恒久的 努力을 하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요즘의 博物館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곳으로도 되지만 一般公衆의 休息·娛樂 등의 餘暇善用의 場所로도 利用되어야 한다. 따라서 大學博物館도 위와 같은 役割을 하여야 함은 當然하다.

그러나 大學博物館은 大學教育에 必要한 視聽覺의인 資料를 갖추어 이를 體系있게 陳列 展示하여 教育의 目的을 達成하는데 있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려면은 各種 資料를 蒐集 整理하여 展示함으로서 一次의인 責任은 免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 그쳐서는 그 所期의 目的의 半만 到達한 것이다. 그것은 陳列品の 一例를 들어서 高麗時代의 磁器에 對해서 알아 보면 高麗磁器가 發生한, 原因, 이 磁器를 生産하는 窯地의 全國의인 分布圖, 磁器의 製作過程, 磁器의 生産에 從事한 匠人, 匠人손에 依하여 生産된 磁器를 使用하던 階層, 器形의 美(色이나 文樣)등 高麗磁器의 發生에서부터 使用人들까지의 當代의 社會·文化를 完全히 糾明시켜야 비로서 所期의 目的에 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大學博物館은 그 施設物 卽 場所·收藏品·展示品등으로서 社會教育 活動에 크게 協助하여야 한다. 그리고 大學과 博物館이 別個의 施設을 가지고 그 機能을 遂行하고 있으나 大學이 生涯教育에 있어서 個個의 人生에 있어서의 어떤 特定期間안에 專門教育의 學習의 場이 되는 한 過程에 不過하다. 그러나 大學博物館은 生涯教育學習의 中心的 機能을 다할 수 있는 役割을 함께 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람의 한 平生을 통하여 低年齡者로부터 高齡者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特別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들의 어떠한 要求에 應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最近 生涯教育(Life long Integrated Education)論이 各國에서 論議되고 있는데 從來와 같은 急速한 技術의 革新이라던가 社會構造의 複雜한 變化에 對應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餘暇善用의 擴大에 依한 大衆의 知識의 慾望의 增大등에 對應하려는 理念이다. 이러한 生涯教育은 누구나 어떤 教育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個人이 自發적으로 社會의 變化에 適應하기 爲하여 스스로 느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 生涯教育은 學校教育 觀念과 같이 가르치고 기르다가 아니고 또 위에서 밀로서의 注入式教育도 아니며 基礎的 繼承의 教育도 아니다. 個人이 自由스럽게 보고 익히는 形態이므로 大學博物館은 生涯教育의 場이 되도록 努力·研究하여야 된다는 것이 大學博物館의 큰 役割中的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地域社會와의 關係를 살펴보면 大學博物館이 반드시 값비싼 美術品이나 參考資料를 蒐集·展示할 必要는 없다. 그 大學이 屬해 있는 市·道·郡·面의 傳統生活用具를 學術적으로 蒐集하여 科學的인 陳列 展示를 하면 되는 것이다. 大學博物館은 現在의 立場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다가올 未來相도 計算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現在 機械化되어 가는 農魚村에서 過去 또는 現在 使用되고 있는 傳統産業用具를 蒐集한다면 于先 이들 道具의 散失을 막을 수 있고 다음으로는 몇년 後에는 도저히 求할 수 없는 좋은 資料가 될 것이다.

또 大學博物館은 大學이 屬해 있는 地域社會人에게 여러가지 文化事業 卽 講演會·各種展示會 등을 열어 그들을 啓發시키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며 그 地域의 有形·無形의 文化財의 發掘·調査·研究에도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作業은 그 地域의 有形·無形 文化財를 保護·育成하는 데에도 크게 寄與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事業은 도리어 大學博物館이 住民들로부터의 많은 精神的이나 物質的인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段階가 되풀이 되면서 그 大學博物館은 크게 發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大學博物館을 움직이려면 어떠한 組織이 있어야 하는데 그 組織이란 大學博物館의 職員을 말한다. 一般博物館이나 大學博物館이나 博物館으로서의 機能이나 役割을 하려면은 展示할 수 있는 資料, 이 資料를 모아놓는 場所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資料를 蒐集하고 展示·研究하는 職員이 必要한 것이다.

職員이라 함은 博物館에 勤務하는 全員을 가르키고 이들이 博物館을 維持·運營하는 것이다. 大學博物館의 種類와 規模에 依하여 職員도 다르겠으나 基本的으로 專門職員과 事務職員 그리고 이들을 統括하는 館長이 있어야 한다. 먼저 館長에 對해서 알아 보자. 一般博物館과 달라서 大學博物館長은 大學에 附屬된 한 機關인 博物館의 長인 것이다. 때문에 여기서는 館長의 職務라든가 資格에 對해서 새삼 論할 必要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大學博物館의 長들이 過然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資格과 職務를 遂行하였는가는 正確하게 말할 수 없다. 勿論 몇몇 大學의 境遇이겠으나 過去에는 某大學에서는 物理學을 專攻하는 教授가, 某大學은 法學을 專攻하는 教授가 大學博物館長으로 있었다. 그 大學博物館은 特殊한 專門博物館이 아니고 綜合博物館이었는데 이들이 過然 大學博物館을 올바르게 育成하였는가는 問題이고 甚할 境遇에는 서울 近郊에서 先史遺蹟의 大學聯合發掘이 있었을 때 하루밤을 자더니 苦生스럽다는 理由로 學生을 引率하고 昌慶宛구경을 마치고 自己들 大學으로 돌아간 적도 있다. 이런 館長이 있는 限 大學博物館이 그에 주어진 役割을 遂行하기 前에 大學博物館의 育成 發展에 沮害의인 要因밖에 되지 않는다. 또 大學博物館長은 大學에 따라 다르겠으나 그 任期가 2~3년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大學博物館의 機能과 役割을 充實히 하려면은 于先 附屬機關인 博物館長이라는 감투에만 눈을 돌리지 말고 그 職務에 所在를 다하여야 할 것은 勿論이려니와 밑에 있는 學藝員이나 事務職員에게도 博物館에 對한 어설픈 知識을 가지고 命命만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恒常 相議하여 보다 發展의인 方向을 研究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學藝員에 對해서 알아보면 몇몇 大學을 除外하고 大學博物館에 正式으로 學藝員을 둔곳은 그리 많지 않다. 便宜上 學藝員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 大部分이 事務職員으로 되고 있다 事務職의 待接을 받으면서 學藝職의 일을 맡기는 矛盾을 大學博物館에서 行하고 있다. 學藝員이란 그 博物館의 中樞의 要員이다. 大學博物館이 特定人을 爲한 機關이 아니고 學生·市民에게 恒常 公開되어야 하는 機關임은 앞에서든 言及하였다. 따라서 學生이나 一般人 또는 研究目的으로 찾아오는

人事에게는 그들의 調査·研究에 必要한 資料는 언제든지 提供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이러한 일을 하려면은 資料의 蒐集·分類·展示가 이들의 任務가 될 것이다. 必要한 資料를 學術적으로 蒐集하고 그 蒐集된 資料를 科學적으로 分類하여 技術적으로 展示하는 것이 學藝員의 任務이다. 그리고 收藏하고 있는 資料의 價値를 쉽게 解說하고 普及하는 것도 이들이 하여야 할 作業中的 하나이다. 위에서 본 것은 對內的인 任務이다. 大學構內를 떠나서 하여야 할 일은 全國에 散在되어 調査되지 않고 있는 文化 遺蹟의 調査·發掘 및 散失되어 가는 遺物의 蒐集·調査·研究도 兼해야 한다. 이러한 莫重한 作業을 하여야 할 學藝員을 가진 大學博物館이 몇 곳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大學博物館이 그 機能과 役割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될 것이다.

다음으로 事務職員을 살펴보면 大學博物館도 一般博物館과 마찬가지로 館長이나 學藝員만으로는 그 機能을 다할 수 없다. 大學博物館을 움직이려면 一般事務行政도 많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學藝活動을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한다면 大學博物館의 業務를 活潑히 하기 위해서는 이들 事務職員의 役割이 大端히 重要한 것이다. 館長의 뜻을 받들어, 學藝員의 要望을 理解하고 事務的인 節次를 積極적으로 迅速하게 處理해야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大學博物館의 環境造成에도 이들이 絶對로 必要한 것이다. 環境이라면 內部的인 面과 外部的인 面이 있다. 內部的인 面은 資料의 陳列이다 아무리 값진 美術品이라도 展示方法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다. 바꾸어 말하면 아무리 보잘 것 없는 資料라 하더라도 展示하는 環境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또 外部的인 面이라면 大學博物館의 外部公開의 問題로서 學生이나 外部人事들의 休息處·娛樂處로서 利用될 수 있게 恒常 細心한 配慮를 하여야 한다. 이르기 위해서는 博物館의 定義나 概念을 充分히 理解하는 職員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되려면은 이에 關한 研究를 不斷히 繼續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써 大學博物館은 보다 많은 學生들을 誘致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實物이나 補助資料를 通하여 보다 많은 보다 새로운 知識을 習得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一般人이나 研究者들에게도 寄與하게 될 것이고 生涯教育·平生教育의 場의 구실을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結 論

博物館이 誕生하려면은 두가지 境遇가 있는데 하나는 自然發生的의 設立이고 다른 하나는 人爲的·計劃的의 設立이라고 할 수 있다. 前者는 特別한 사람의 住宅 記念物로 남은 記念博物館이라던가 歷史的 遺蹟이 많은 곳에 세워진 博物館, 天然記念物등을 保護하기 위하여 세워진 博物館과 特定機關에 附屬된 寶物博物館등인데 이러한 博物館은 그 場所가 第一 重要한 것으로 그 場所를 떠나서는 그 存在 意義가 적어진다. 그러나 人爲的·計劃的으로 세워진 博物館은 國·公立이나 道·市立 또는 私立博物館이다. 그런데 大學博物館은 어떠한 目的아래 大學이 設立되고 그 大學의 附屬 또는 附設로서 두게 된다. 따라서 大學이 먼저 서고 그 몇년 후에 附屬機關으로서의 大學博物館이 開館을 하게 마련이다.

博物館의 目的이 蒐集·保管·展示·研究 外에 娛樂이나 休息處로서도 利用되어야 한다고하는 이때 大學博物館도 이와같은 行爲를 하여야 함은 當然한 일이겠으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大學이나 博物館이나 直接·間接으로 教育의 場이 되어야 함은 再論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機能과 役割을 하려면은 蒐集·展示할 物件(資料)이 있어야 하겠는데 各大學博物館의 現在의 豫算으로서는 도저히 充當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어떠한 經緯가 되었든지 蒐集된 資料를 展示할 場所가 있어야 하겠는데 獨立된 博物館의 建物을 가지고 있는 大學도 있으나 現在의 各大學事情으로 보면 高層建物의 上層의 한 講義室이 附屬博物館으로 되어있는 곳도 相當數가 있다. 다음으로 蒐集·展示를 爲하여 大學博物館을 움직이는 專門學藝員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大學博物館이 그러하지 못하다. 이러한, 實情이고 보면 몇大學博物館을 除外한 大部分의 大學博物館이 그 機能과 役割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도 過言은 아니다. 그러므로 大學博物館은 綜合博物館을 目的으로 한다 하여도 于先은 그 大學의 教育現實에 맞는 特殊한 博物館·專門인 博物館으로 設立·運營되어야 마땅할 줄 안다. 또 大學博物館은 그 大學이 位置한 地域社會와도 깊은 關係를 맺어야 한다함은 이미 言及되었지만 大學博物館이 반드시 많은 蒐集品을 展示하여야 되는것은 아니다. 그 地域의 文化的 性格을 考慮하여 各種 文化行事를 主管·主催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地域의 文化遺蹟을 調査·研究할 수도 있다.

어떻던 大學博物館의 實態와 活動이 適正하게 評價되지 못하고 있는 現狀에서 大學博物館은 보다 많은 豫算을 確保하여 學術的인 資料의 蒐集과 科學的인 陳列·展示와 技術的인 運營을 爲하여 有能한 學藝員의 迎入·養成에 힘을 써 그 大學의 教育理念에 맞게 運營될 뿐만 아니라 生涯教育의 場이 되어 그 屬해 있는 社會·一般大衆에게 寄與하는데 努力하여야 大學博物館으로서의 機能과 役割을 다 할 수 있다고 하겠다.

1982. 10. 27